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도시산책 모티브의 양상

변찬복*
byunim@anyang.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2 무의지적 기억과 멜랑콜리 |
| 2. 모더니티와 산책자: 일본모더니즘을 경유하여 | 4. 나가는 말 |
| 3. 도시산책 모티브의 양상 | |
| 3.1 경계적 자아와 고독의 알레고리 | |

主題語: 도시산책(city walks), 고현학(study of modern social phenomena), 경계적 자아(boundary Self), 알레고리(allegory), 무의지적 기억(involuntary memory), 멜랑콜리(melancholy), 일본 모더니즘(modernism in Japan)

1. 들어가는 말

박태원의 소설은 식민지기 근대화의 진행으로 나타난 도시 경성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한일합방은 조선의 전통사회에 자본 이데올로기가 유입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조선의 중심지였던 서울은 양반계급의 몰락과 상인계급의 부상, 인력거와 전차와 같은 교통기관의 출현, 인구의 급증 등의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19세 말부터 봉건제도가 해체되었고 모든 도시를 18세기 영국의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도시의 거리를 조성하였다(마츠야마 메구미(松山恵), 2012). 특히 도심의 변화가는 불빛, 네온사인, 가로수, 유럽식 건축물, 아스팔트, 행인 등 도시인의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근대도시 조성 방식은 식민지 경성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식민도시 경성은 외부환경에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전통공간이 해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구조화되는 근대도시로 탈바꿈되었다. 근대화라는 문화적 전이현상은 공간적으로는 오늘날 과 같은 도시 형상을 갖춘 장소들을 만들어갔다. 이 같이 근대화와 도시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근대도시 경성의 등장은 서울이라는 전통공간에 각인되어 있던 사회적 관계가 탈장소화 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새로운 합리적 삶의 관계로 재장소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성욱, 2002, 37). 즉 경성이라는 근대도시

*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의 형성은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축물이 파괴되고 이국적인 건축물이 조선의 전통적 거리와 거주지를 배경으로 세워지는 물리적 변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양식이 오래된 양식과 공존하는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총체적 변화의 과정에서 문화적·공간적 소외, 물신숭배, 실업과 같은 도시적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도시 문제들은 신문과 잡지와 같은 매체에 의해서도 분석되고 비평되었지만 문인들에 의해 소설이나 시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형상화 되었다. 이 당시의 문인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을 다녀 온 지식인으로서 경성 변화가 산책을 통해 도시생활에 대한 매혹과 반감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즉 경성이라는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도시라는 공간 그 자체 혹은 식민자본주의 도시 경성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현하는 도시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대소설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던 구체적인 장소가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지리적 장소감은 작가의 의도나 시대의식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박태원의 소설에서는 경성이라는 도시의 거리와 건물들이 일체에 의해 새롭게 부여된 지명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지금의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이다. 소설 속 공간으로서의 경성은 허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실제 장소(actual place)라는 면에서 도시산책이 창작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식민지기의 소설들은 자본 중심적인 속물성에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도시의 시각적 현란함과 소비의 매혹으로부터 발을 빼지 못하는 양가적 감정을 다루고 있다. 한편 박태원은 관찰을 통해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고현학(考現學)을 창작기법으로 취하고 있어 군중의 일원이면서 비판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배회하는 산책자의 태도를 선취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실제로 박태원은 『애욕』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의 글쓰기 기법을 고현학이라고 지칭하였다. 문학사에 있어서 도시산책이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부각된 것은 보들레르(Baudelaire, 1821-1867)가 파리를 그의 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라는 도시 자체를 주제로 시작(詩作)을 펼친 이후부터이다. 보들레르는 19세기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파리를 정체된 삶으로부터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익명의 존재 혹은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과 돌들로 된 기괴한 집적물(Ces amas monstrueux d'hommes et de pierres)”로 보았다(보들레르, 1995). 그는 거리의 군중 속에서 도시를 관찰하는 사람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거대한 인간의 사막을 여행하는 고독한 플라뇌르(flâneur)의 태도를 취한다. 벤야민은 도시에 대한 보들레르의 멜랑콜릭적 응시와 알레고리적 통찰을 받아들이면서 근대성과 도시를 산책자의 양가적 시각으로 해석한다. 박태원 역시 근대도시 경성의 공간적 배경과 경성 유민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소외, 권태, 고독을 통해 도시를 반성적으로 읽어내는 알레고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산책자 시각과 맞닿아 있다. 박태원은 근대 식민지기의 모더니티라는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모더니티의 모태이기도 하고 산물이기도 한 도시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도시를 관찰하는 산책자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박태원 소설의 산책자 모티브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연구자마다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었다(최혜실, 1988; 박성창, 2010; 최은자, 2001). 본고에서는 모더니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고독과 권태, 그리고 멜랑콜리의 관점에서 박태원의 소설에 나타난 도시산책자 모티브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2. 모더니티와 산책자: 일본모더니즘을 경유하여

본장에서는 박태원 소설의 도시산책자 모티브의 배경이 되는 모더니티와 산책자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모더니티는 매우 길고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성립된 개념이며 아직 그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많이 남아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막스 베버의 서구적 합리주의로, 철학적 측면에서는 주체의 내면성과 정신성으로 모더니티를 압축하여 말할 수 있다. “모던(modern)”이라는 용어는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배세력인 부르주아의 가치관, 기술발전, 그리고 물질의 풍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르페브르(Lefevre) 식으로 말하면 과거의 양식을 버리고 현재의 양식을 취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따라서 모더니티는 근대의 현실, 즉 기술과 과학의 발전과 자본주의가 야기한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말한다. 요컨대 보들레르는 현재라는 시간성과 시적 영원성이 공존하는 상태를 모더니티로 보았다. 칼리 네쿠스(1993)는¹⁾ 산업혁명 이후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역사적 모더니티 혹은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와 과도한 삶의 변화가 가져온 충격경험과 인간성 상실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학적 모더니티를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들레르는 두 가지 모더니티를 모두 수용하여 모던(modern)한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인 현재성과 불변하는 영원성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조희원, 2011, p.253) 도시 산책자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적 산업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나타난 도시의 배회자이면서 동시에 도시성을 비판하는 관찰자를 일컫는다. 벤야민(Benjamin)은 서구 근대도시 파리(Paris)와 함께 존재하는 보들레르적 산책자를 도시 산책자의 기원으로 본다. 도시 산책자라는 용어가 보들레르의

1) 칼리네쿠스·이영옥 외 역(1993)『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시각과 언어, pp.53-58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라는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산책자 개념을 이어받아 도시풍경을 관상학적으로 해독하는 모더니티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즉 벤야민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 숨어있는 군중이 남긴 흔적을 찾아내어 알레고리적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박태원은 근대도시 경성이라는 공간에 박태원의 카메라 역할을 하는 구보라는 인물을 내세워 경성유민들의 세태를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관찰자 자신이 도시의 현란함과 세련됨에 도취되면서도 속물성과 무상성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벤야민과 같이 도시를 알레고리적 통찰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파리의 산책자와 자본주의의 파급이 아직은 미미했던 식민도시 경성의 산책자의 경험은 1800년대 중반 보들레르가 파리에서 겪었던 충격경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²⁾ 보들레르가 경험한 파리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 산업화, 기계화, 대규모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던 프랑스의 제2제정기였으므로 정체성을 잃고 불안과 우울로 인한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부정형의 도시 군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간이었다. 보들레르는 이러한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추억한다. 그는 도시의 우울, 슬픔, 고독, 가난, 불행을 때로는 산책자의 시각에서 또는 군중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내면의식으로 이미지화시켜서 도시를 노래한 시인이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시의 소재와 상상력의 물꼬를 찾으려 했던 낭만주의 시인들과 달리 보들레르는 건물의 지붕에서, 건설 중인 도로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작업장에서 상상력을 자극받고 시적 감수성을 제공받았다. 또한 불구의 늙은이, 소외된 늙은 광대, 낭만주의와 같은 도시에서 소외된 자들을 모두 자신의 유령으로 보고 이들을 고향을 잃은 백조이며 남편을 잃은 과부이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로 묘사함으로써 도시 군중 안에서 알레고리를 발견한다. 그러나 박태원이나 이상의 모더니즘은 림펜형 실직자와 같이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노동자, 카페여급, 급사와 같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일상인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보들레르는 전통을 부정하면서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야기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반면에 박태원 소설에서는 식민지기 자본주의가 야기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조선 사회의 전통적 윤리인 건강한 삶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보들레르가 도시에서 소외된 자들을 도시 풍경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미의식으로 표현했다면 박태원은

2) 권은(2013)「경성모더니즘 소설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7, 한국 근대소설에 구현된 도시산책은 당시 도쿄의 아사쿠사나 긴자(銀座) 같은 변화가에서 ‘변화가 돌아다니기’가 유행한데서 유래한다. ‘긴부라(銀ブラ)’는 도쿄 긴자 거리를 구경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말한다. 경성의 본정(지금의 명동)을 돌아다니는 혼부라(本ブラ)는 긴부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본정과 황금정은 일본인들의 거주지였지만 미스코시 백화점(지금의 명동 신세계 백화점) 등 화려한 근대 문물이 들어섰던 곳이라 조선인들도 자주 이 곳으로 산책을 나왔다.

행복의 추구,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친구에 대한 그리움 같이 보편적 휴머니즘으로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흙 패인 회색빛 공간에서 녹색의 정원을 상상하고 도시적 기만과 정신적 빈곤에서 인간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출해내는 보들레르의 통찰력은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시선과 닮아있다. 벤야민은 알레고리적 통찰을 “사물들의 무상성에 대한 통찰이며 영원으로 구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으며 영원함에서 무상성을 발견하고 무상성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노명우, 2007에서 재인용). 벤야민은 파리의 근대적 도시화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서서히 과거의 유산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근대적 유산인 파사주에서 사라져 가는 근대성을 보았다. 벤야민은 이러한 근대적 유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들레르의 시학을 연결고리로 삼아 서구 도시의 모더니티의 기원을 알레고리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벤야민은 무상성과 영원성의 화해할 수 없는 반립이라는 보들레르의 모더니티에³⁾ 대한 정의를 수용한다. 이와 같이 모더니티는 영원함과 무상함의 대립적 힘들이 직조해 내는 알레고리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대사회 있어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은 개인이 물신화 혹은 도구화됨에 따라 획일화된 역할극에 그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역할이 미분화된 다의적 의미의 상호작용이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감성이나 정서에 따라 의미가 동요되는 알레고리적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인간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의미하는 모더니티의 알레고리적 형상화 시도는 근대성의 특성인 획일화동일화일상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며 가상의 아우라가 지배하는 근대성 속에서 가까이 있어도 나를 어느 먼 곳으로 데려 갈 수 있는 아우라를 발견하려는 기획이기도 하다. 근대사회의 균중, 즉 무정형의 거리 행인들을 관찰하는 산책자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무미건조하게 기술한다면 독자에게 일상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보들레르는 덧없고 아우라를 벗어던진 진흙탕 같은 저속한 도시의 삶에서 오히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그의 시(詩)속에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어떤 먼 것의 일회적 나타남”으로 표현되는 아우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물을 가까이 두는 것을 통해 일회성을 일상성으로 바꾸려는 탈 아우라적 지각 방식을 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공간적·정치적 소외를 겪고 있는 도시의 삶과 풍경에 주목하고 그것을 알레고리적 사유를 통해 군중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인의 정신적 풍경으로 치환하려는 것이다. 19세기 부르주아 시대의 물신숭배의 상징이었던 파사주는 20세기 현대적 파리에서는 이미 낡고 영락한 유물이 되어 버렸다. 따라

3) 조희원(2011)「보들레르의 모더니티의 개념」『미학』68, p.250, p.253, p.254. 모더니티란 기술의 진보, 산업 혁명,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의미하지만 보들레르는 이성과 진보를 중요시하는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와 현재라는 일시성과 시적 영원성의 공존을 추구하는 미적 모더니티를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는 스스로를 현실로부터 소외시킴으로써 미적 모더니티를 추구했던 낭만주의 예술가들과 달리 일상의 삶속에서 예술의 영원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서 강렬한 폐허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파사주는 벤야민을 한때 화려했던 과거로 데려 가는 데 이때 작용하는 것은 무의지적 기억(souvenir involontaire)이다. 산업화된 19세기 유럽은 도시 제반 현상에 따른 충격 때문에 경험이 불가능해졌으며 다만 체험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충격이 일상화된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건과 인상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기억되지 못하고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의지적 기억으로만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무의지적 기억이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무의지적 기억은 대상이 시선의 주체를 어느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알레고리적 시선은 벤야민이 말하는 아우라적 시선과 일맥상통 한다. 벤야민(1983)은 「보들레르의 모티브에 관하여」에서 “어떤 아우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시선을 되돌려주는 능력을 그 현상에 부여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군중은 도시가 내뿜는 수많은 충격으로 인해 대상으로부터 시선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그러나 몰락한 파사주를 바라보는 벤야민의 시선은 해골에서 자연사를 번역해냈던 바로크 알레고리 시인들의 시선, 혹은 도시의 어두운 골목에서 낭만적 자연을 떠올렸던 보들레르의 시선과 닮아있다. 생존을 위해 도시의 충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체험 단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일상성과 거리를 두는 행위인 산책이나 여행일 것이다. 즉 산책과 여행은 무의지적 기억을 작동시키고 진정한 경험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보들레르와 벤야민의 산책자 담론은 박태원 소설의 산책자 모티브와 관련하여 근거적 이론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구 모더니티가 일본의 모더니즘을 거쳐서 식민지기 모더니즘에 반영된 만큼 보들레르가 추구하던 미적 모더니티와 박태원 소설에서 나타나는 미적모더니티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일제 식민지기에는 지식인들에게 정치사회적으로 은연중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으며 근대화 과정이 서구의 그것처럼 전면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이 리얼리즘의 대척점에서 출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박태원 소설을 포함한 30년대 모더니즘은 미적 모더니티를 추구하면서도 식민지기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독특한 리얼리즘 성향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박태원이나 이상이 1930년대 동경에서 생활하고 글쓰기를 실행한 만큼 그 당시 일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30년대에는 식민지기 조선문단 역시 프로레타리아 문학(카프문학)이 쇠퇴하고 모더니즘이 시작되었듯이 일본문단 역시 쇼와시대 초기 사회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프로레타리아 문학이 쇠퇴하고 전향문학이나 모더니즘 문학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관동대지진 이후의 군국주의, 대도시화와 거대소비로의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의 기성문학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불안, 우울, 두려움, 신경증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김효순, 2012)⁴⁾. 이 같은 일본문단의 모더니즘적 경향이 경성이라는 근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박태원 혹은 이상의 모더니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모더니즘과

식민지기 조선의 모더니즘이 보들레르 시대의 모더니즘과 비교해 보면 전전(戰前)의 경색된 시대적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의 소외의식을 다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미적 모더니티의 재현 방식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3. 도시 산책자 모티브의 양상

작가의 분신이며 중심인물로 자주 등장하는 산책자 구보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학적 모더니티, 현실 적응자와 현실 부적응자, 즉자적 속물과 대자적 속물, 에토스와 파토스의 경계에 있는 자이며 도시와 군중에 대해 매혹과 역겨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갖는 자이다. 따라서 경계적 자아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태원 소설에 자주 표현되는 키워드인 고독과 권태는 일반적으로 나태함과 현실 도피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구보를 비롯하여 여러 중심인물들은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대항적 태도를 중층적인 의미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고독과 권태에 대한 알레고리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박태원 소설에는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경성 하층민, 매춘으로 삶을 영위하는 카페 여급,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류사회에서 배제된 지식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더욱이 작가나 구보 자신도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비판적 지식인이다. 따라서 이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멜랑콜리의 정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멜랑콜리의 표현방식은 인간의 실존을 다의적으로 표현하는 알레고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심인물의 비극적 상황이나 슬픔 이면에 있는 변증적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경계적 자아와 고독의 알레고리

경성은 서울이라는 조선의 전통적 공간 위에 근대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주 구역, 소비 공간, 유흥공간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분리하는 이중구도로 나타났다. 경성의

4) 김효순(2012)「이상 문학의 불안과 마키노신이치(牧野信一) 문학의 방법」『일본근대학연구』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188

5) 맹주만(2009)「칸트와 노자: 경계와 사이의 철학」『칸트연구』 24호, 칸트학회, p.205. 맹주만은 칸트와 노자의 철학을 현상과 존재의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 두 영역을 하나의 시선 속에 포착해야 하는 사유의 존재론으로 설명하면서 그러한 사유의 주체를 경계적 자아(the Boundary Self)로 명명하였다.

변화가도 조선인 변화가인 북쪽의 종로와 일본인 변화가인 남쪽의 본정·황금정·명치정으로 구분되었다(전우용, 2001; 여환진, 2010). 박태원은 1909년 경성부의 다옥정(지금의 수송동)에서 태어났다. 다옥정은 주로 조선의 중인계층이 살던 곳으로 약국, 다방, 이발소, 술집 등 근대적 상가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었다(최은자, 2001). 그의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간인 천변(川邊)은 청계천을 말하며 당시 경성의 거주지역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북쪽과 일본인의 남쪽으로 나뉜 점을 감안하면 박태원은 신분적으로는 조선 사회의 중인 출신이면서 지리적으로는 북쪽과 남쪽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근대화된 도심에서 태어나서 자란 박태원은 경성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읽어낼 만한 시선을 경험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그의 유년시절 배경을 보면 근대문명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동경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면서도 경성의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 소외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소설가로서 도시를 배회하는 룸펜(Lumpen) 인텔리에 속한다. 룸펜 인텔리는 자본주의적 속물성에 교화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본으로 수렴되는 교환가치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도 언제나 경계에 위치하는 대자적 속물인 것이다.⁷⁾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그는 북촌과 남촌을 넘나드는 산책을 통해서 경성의 도시적 풍경을 아름다운 환상과 이국적 낭만을 유희하는 공간이면서도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편화시키는 변증적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근대도시 경성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내면을 고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적멸』은 소설이라는 허구의 세계와 소설 밖의 현실이 오버랩 되면서 주인공을 통해 창작과정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글쓰기 소설이다. 중심인물 ‘나’는 조선인 지역인 북촌으로부터 일본인 지역인 남촌으로의 산책을 통해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고현학자이며 소설가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카페에서 시작된다. 1930년대에는 경성거리엔 다방(카페)이 넘쳐났으며 주인공과 같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도회적 감수성을 체험하는 장소이자 문학을 소통하는 통로였다.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로부터 이 두 공간이 구분되기 시작한 근대의 경성에서 카페라는 공간은 대화와 사교의

6) 川村湊 著/吉川楓 譯(2004)『한양경성 서울을 걷다』다인아트, p.44. 경성을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촌과 북촌으로 나뉜다. 조선시대에는 고위직 관료나 왕족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잇는 선 위인 북촌에, 하급관료들과 무관은 남산자락 남촌에, 중인계급은 왕궁과 종로사이의 지역(청계천 근처 다방골)에서, 평민은 종로를 중심으로 발달한 상점가나 시장 근방에 모여 살았다.

7) 김홍중(2010)『마음의 사회학』문학동네, p.55. 속물은 체제 내에 포섭되어 축적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재산과 지위를 축적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지만 정작 자기 주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없는 부류로 정의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누구나 속물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속물은 속물을 살피 스스로가 속물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즉자적 속물과 스스로가 속물임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대자적 속물로 분화된다고 주장한다.

공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페는 구보와 같이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소외된 산책자가 약간의 소비를 매개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시를 전유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경성의 많은 사람들이 모더니티의 충격체험과 타인의 무차별적 시선을 어느 정도 감추기 위해 익명성의 공간인 카페에 모여들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역시 거리, 대합실과 전차처럼 임시적이고 희박한 인간관계로 이어질 뿐이다. 구보와 같은 산책자에게도 카페는 몇 푼의 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환가치의 공간이며 타인에 대한 예의바른 무관심과 익명성이 지배하는 소외의 공간이다. 박태원은 그 당시의 카페의 기능을 『적멸』의 주인공을 통해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다. 즉 소설 속에서 소설가의 역할을 맡은 주인공, ‘나’는 고현학적 관찰자와 산책자이며 동시에 군중으로부터 관찰당하는 피사체이기도 하다.

첫 번에 들어간 카페에는 손님이 만치 안 했다 마는 위선 뱃속을 든든하게 할 작정으로 음식을 두어 가지 시키고(무슨 소설가라는 나의 직업이 본능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심심풀이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보기로 하였다. (적멸, p.12)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와 눈썹하고 있던 중에 글쓰기의 영감을 얻기 위해 고리로 나선 뒤 거리가 아닌 카페에서 타인을 관찰하던 중 스스로 정신병자라고 소개하는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된다. ‘나’는 타인을 관찰하려는 의도로 카페에 있지만 카페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와 담배연기가 뒤섞인 탁한 공기와 사람들의 대화 광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나이의 이상한 고백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고현학은 단지 시각적 ‘보기’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으로 수용되는 모든 사물, 사람, 현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냥 심심풀이로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말한 것은 경성의 식민지 자본주의의 병리적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현학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나’가 인생이 끊임없이 권태롭다고 말하는 사나이에 매료되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는 행위는 ‘나’와 사나이는 근대도시 경성의 식민지 자본주의적 생산체계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나이의 권태는 ‘나’와 달리 일상적인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가 권태를 지각하는 방식은 근대성 자체를 권태로 보는 보들레르의 시선과 유사하다. 보들레르는 도시를 병실로 보고 도시의 군중들은 환자이며 환자들은 침대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병실의 권태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세상 밖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다. 보들레르는 근대화의 산물인 권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의 새로움을 찾아 나서겠다는 대항적 사유를 펼친다. 보들레르는 도시인

들에게 엄습해 오는 권태를 일시적이고 개인의 고유한 사태가 아니라 존재론적 권태로 보았다. 박태원 역시 사나이의 광기와 권태를 일시적인 병리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 혹은 도시인들의 ‘있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존재론적 권태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나이는 광기를 가장하여 허위에 찬 일상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옷이나 신발을 위하여 야단법석을 떠는 무리와 물신숭배에 젖어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반드시 현실도피적인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사나이의 광기어린 행동을 보고 박태원 혹은 ‘나’ 구보는 단지 사나이의 지독한 권태 이면에 숨어있는 고독에 연민을 느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아우라와 진정성이 상실되어 가는 경성의 중층적인 풍경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즉 작가는 근대 도시 경성의 군중 속을 횡단하면서 도시의 덧없는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통해 보편적인 모더니티의 알레고리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박태원은 근대 도시의 무상성에서 영원함을 찾으려는 산책자의 시각으로 사나이의 고독을 식민지기 경성의 풍경에 이입하고 있다.

박태원이 『적멸』에서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정신병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인 레인코트의 사나이가 “이 년이 넘는 독서생활 그리고 사 년 가량 사색”을 했다는 말과 스티븐슨의 『닥터 지킬 앤 하이드』, 발자크의 『인간희극』등을 인용하는 부분은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레인코트의 사나이를 통해 당시 식민화에 의한 피식민지인 조선 사람들의 정신 병리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식민지기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는 ‘카페’가 일본인 지역인 남촌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카페’에서 관찰되는 대상들의 묘사에서 알 수 있다. ‘카페’의 일본인들은 토머스 칼라일의 텍스트에서 나오는 미라보와 크롬웰과 같은 영웅으로 빗대어 묘사된다.⁸⁾

저만만하면 염려 없이 영웅숭배자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으려니...하고 생각하였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각각 미라보와 크롬웰을 흡사한 까닭이다. 얼굴을 맞대고 기탄없이 웃고 떠들고 하는 그들. 그러나 차림차림은 어떻든 간에 그들의 기쁨은 비할 데 없이 큰 모양이었다. 술잔 기울일 시간조차 아까운 듯이 웃고 떠들고.. ‘아마 치통이 완치된 게로군’ 이렇게도 생각해보았으나 미라보는 그걸로 만족한다 하더라도 크롬웰의 기쁨은 확실히 그 이상인 듯싶다. ‘그럼 자기계모가 죽기라고 한 것일까?’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적멸 연재 2회분)

여기서 작가가 일본인들의 비유대상으로 청교도 혁명의 영웅 미라보와 프랑스 혁명의 영웅 크롬웰을 설정한 것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의 정치적 행위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8) 토머스 칼라일(2003)『영웅숭배론』한길사, p.17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혁명에 성공한 지배계급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것이다. 이에 반해 ‘카페’의 조선인들의 대화는 “현대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우리 프롤레타리아를 해방 시켜야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계급인 일본인과 피지배계급인 조선인 간의 민족 격리를 나타내려는 의도보다는 양 계급의 의식을 모두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중심인물 ‘나’의 저항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모더니티의 산물로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산책자의 특성 중의 하나가 근대화가 수반하는 스노비즘(snobbism)에 대한 강한 저항을 담지한 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경성이 식민지가 아니었더라도 가진 계층과 가지지 않은 계층 사이의 사회적 긴장은 존재했을 것이며 당연히 그 경계에 지식인 도시산책자가 위치할 것이다. 레인코트 사나이의 대화 내용 역시 현재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고현학자의 시각이 아니라 식민지기 지식인의 저항의식과 계급의식을 사나이를 통해 구현하려는 기획이 숨어있다. 특히 『적멸』에서 ‘혁명’, ‘해방’, ‘전복’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경성 유민들의 정신적 풍경을 형상화한 것은 보들레르가 대도시 빈민계급인 념마주의를 그의 서정시에 주요 테마로 사용하여 근대 파리의 사회적·정치적 풍경을 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파리의 념마주의는 불안정한 생존에 직면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이며 보들레르는 념마주의의 실존적 위치에서 거리의 산보자로 나선다. 벤야민은 이 같은 보들레르의 산책자 태도를 도시의 소외와 매혹이라는 양가적 태도로 이해하면서 대도시의 꿈꾸는 집단인 군중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대도시의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것이 알레고리적 독법의 과제라고 주장한다.⁹⁾ 박태원 역시 경성이라는 도시의 정치적·사회적 풍경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식인 룬펜 의식과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신병자의 고독을 함께하는 태도에서 모더니티가 낳은 도시 산책자의 경계적 자아를 엿볼 수 있다. 이 같이 『적멸』이라는 소설의 구성에서 경성 산책자인 ‘나’는 일본인 지역인 본정통의 ‘카페’에서 식민 지배계급과 피식민 조선인을 하나의 풍경으로 탐사하면서 그들의 상반된 의식을 ‘나’의 정신적 풍경에 대입시키는 알레고리적 측면을 감지할 수 있다.

작가는 『애욕』에서 팜프파탈적인 모던 길에 대한 주인공 허웅의 욕망을 구보리는 박태원의 카메라로 관찰하는 소설이다. 소설의 배경도 지금의 정동골목, 경성지방방법원(지금의 국립미술관)과 이회학당 돌담길과 같은 실제적 공간이다. 경성의 서남부에 해당하는 이 공간은 종로와 청계천의 북촌이나 본정통의 남촌도 아니고 영사관들과 학교, 관청이 모여 있는 공적 공간이며 식민지배자와 피식민 계급의 경계적 공간이다. 근대 파리에서 지식인층에 속하는 도시

9) 발터 벤야민(2010)『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도서출판 길, p.24

산책자가 대도시와 부르주아 계급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도 근대와 전근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였듯이 『애욕』에서 두 남녀의 데이트 장소를 남촌도 북촌도 아닌 정동골목으로 설정한 것은 고현학을 실천하던 구보가 룬펜 인텔리로서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경계적 지위에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모던 걸이란 식민지기 자본주의 유입으로 인해 한 남자에게 애정을 쏟는 순정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이 사라지고 모든 남자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유행을 쫓는 여인이다. 따라서 모던 걸과 모던 보이는 도시의 매혹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식민지기 경성의 도시풍경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익명의 군중이다. ‘마로니에’ 찾집 주인 하응은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않는 어떤 모던 걸에게 매혹되어 세속적인 욕정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모던 걸의 이름도 명명하지 않고 ‘여자’와 ‘계집’으로 표현함으로써 모던 걸의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하게 익명화되어 살아가는 도시의 모든 군중을 암시하는 것이다. 도시산책자 또한 익명성 뒤에 숨어서 도시를 잠행하면서 군중의 매혹과 도취에 동조하기도 하고 동시에 군중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간직하고 있는 자이다. 익명의 주체인 작가는 경성 도심의 풍경을 욕망과 욕정이 뒤엉킨 남녀의 만남과 같이 근대 도시를 한 번 매혹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욕망의 굴레로 묘사하고 있다. 『애욕』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응은 모던 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골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로 돌아가려는 시점에 많은 남자들과 애정을 나누던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선생님을 뵈옵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오늘 열 점반 정각에 원남동 육교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이는 올림. (박태원 단편선, 애욕, p.196)

하응은 편지를 찢기도 하고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억지로 사랑하는 것보다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던 걸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없는 자신을 느낀다. 그리고 감정의 유희와 인생의 파멸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밖으로 뛰쳐나간다.

시계는 계집이 지정한 시간 바로 오 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잠깐 초침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하응은 미친 사람같이 문지방을 넘어 섬돌위의 구두를 신으며하응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후유가만한 그러나 구할 길 없는 한숨을 토한 것은 순간의 일이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하응은 온몸에 애욕의 흥염 가운데 활활 익어 올랐다. (박태원 단편선, 애욕, pp.199-200)

『애욕』에서도 박태원의 관찰자인 구보가 등장한다. 구보는 애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하慵의 모습에 식민지 자본주의 속물성에 물들어가는 도시 군중의 모습을 대입시킨다. 산책자인 구보 자신은 욕망이 가득한 도시를 떠돌아다니지만 도시의 외적 풍광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만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 시선을 집중한다. 남녀가 욕정에 빠져 사랑하는 사태는 인간사의 반복되는 일상에 불과하지만 구보는 하慵과 모던 걸의 욕망 구조로부터 식민지 도시의 일상성을 관통하는 근대적 욕망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포섭되어 물신숭배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경성유민들에게 키치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작가 박태원의 또 다른 이름이며 카메라인 소설가 구보가 정오쯤 다옥정 집을 나와 서울을 배회하다 새벽 2시경 집으로 귀가하는 원점 회귀적 산책으로 되어 있다. 작가는 어머니, 벗, 선 본 여자, 다방 안 익명의 군중, 소외된 경성유민, 모던 걸, 카페 여급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딱히 현실적인 목적 없이 고현학이나 실천해보고자 집을 나선 구보는 집을 나오자마자 제갈 길을 찾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구보가 군중 속을 잠행할 때 가장 지독한 고독을 느끼기 때문이다. 구보는 군중속의 자아를 이렇게 쓰고 있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 있는 듯싶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해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라 그가 갈 곳은 없었다.....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걸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박태원 단편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p.94, p.96)

그가 집을 처음 나설 때 직업과 아내가 없는 26살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미안한 터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사무가 없는 구보는 고현학의 실천조차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을 느낀다. 동경유학까지 다녀와서도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데에서 오는 소외와 고독은 구보로 하여금 경성을 배회하게 하고 그는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도시의 소극적 방관자로서 근대적 일상과 욕망을 배제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 허탈감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그러한 지식인의 목적 없는 배회는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경성의 도시 풍경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구보의 고독은 개인적인 사회적 소외가 아니더라도 도시산책자가 가져야할 고유한 정서일지도 모른

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산책자 구보는 모더니티의 논리로 체화된 도시 공간을 떠돌아다니며 고현학을 실천하지만 군중의 지배적인 가치인 물신화된 문화와 거리를 두면서 근대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 산책자는 군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군중을 관찰하고 때로는 도시에 매혹되기도 하지만 군중의 속물성과 도시의 현란한 스펙타클에 대한 강한 저항을 담지하고 있는 경계적 인간이다. 구보의 고독은 자본주의의 표징인 백화점에서 발견된다.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을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주려 하였다...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박태원 단편선, p.97)

구보에게는 가정=행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므로 그러한 행복에 동참할 수 없고 특히 “백화점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단정한다. 구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화점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는 구보가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혼육된 육체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백화점으로 향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박태원의 작품 『오월의 훈풍』에서는 동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양말을 사러 백화점까지 가는 행동양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경성 사람들의 상징적 소비 행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길은 어둡고』에서는 백화점이 중심인물인 향이의 꿈을 상징하는 곳으로, 『채가(債家)』에서는 가난한 계층마저 백화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태를 그리고 있다. 더 나아가 김기림의 『봄의 전령』에서는 백화점이 에로티시즘과 향유의 거점으로 언급된다.

肉色の 스타킹..극단으로 짧은 스커트..등등으로 被女들은 둔감한 가두의 기계문명 표면에 짙은 에로티시즘과 발랄한 흥분을 농후하게 칠 것이다. 化商의 쇼윈도우속에서 붉은 입술을 방긋이 벌리고 있고 被女들의 푸른 치마폭은 아침이의 아스팔트위에서 백화점의 층층계위에서 깃발과 같이 발랄하게 팔락거리지 않는가 (김기림 봄의 전령, 이성욱(2002)에서 재인용)

상기와 같이 한국근대 문학이 형상화한 식민지기 경성의 풍경으로부터 우리는 일반 대중의 백화점 이용과 관련된 상품물신이 만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 조선 사회에서는 구매행위가 단지 특정 상품의 획득과 지불이라는 교환행위가 아니라 상인과 고객 간의 인격적 만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으나 백화점과 소비대중의 접촉방식은 한 공간에 많은 상품

을 집중과 배치를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행위를 사회적 권력과 연결시키는 훈육을 강요하고 있다. 백화점은 소비대중에게 끊임없는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시선을 잡아당기는 유혹을 제공한다. 고객의 시선에 포착되는 상품은 사용가치나 촉각적 질이 아니라 사회적 상징 가치 혹은 전시가치만을 제공하게 된다. 벤야민(2010)에 따르면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소비대중의 욕망하는 시선에 둘러싸인 상품들은 일종의 유사 아우라를 획득하기 시작하며, 이것이야말로 보들레르가 말하는 대도시의 “종교적 도취” 혹은 “영혼의 성스러운 매음”을 가능케 한다고 설파한다. 따라서 구보가 “이 곳(백화점)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가정과 직업이 없다는 개인의 특수한 처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이 아니라 식민 시기에 도입된 근대 자본주의와 화폐경제 체제로 만연된 상품물신에의 도취와 소외된 생존양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란 자유라는 이름으로 속물적 욕망과 세속적 성공의 풍요를 전시하려는 마음이다. 식민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욕망의 집합체인 백화점에서는 이러한 스노비즘(snobbism)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하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이 구보는 지식인 립펜이라는 인물 유형으로서 식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상황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일반 군중과 이미 과시적 소비를 즐기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과의 경계에서 있으나 그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존재론적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

구보는 도시산책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자주 언급한다. 화신상회에서 나온 구보는 전차를 기다리면서도 모두 제갈 곳이 있는 군중 속에서 목적지가 특정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자신에 대해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고독이 두려워서 자연이 있는 교외 나들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그는 전차를 타고 동대문을 지나 다시 다옥정 방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도시의 분주함을 경험하고 군중을 만나기 위하여 남대문을 지나 경성역으로 가기로 한다. 그러나 그 곳에는 서너 명의 지게꾼이 맥없이 앉아있는 모습, 시골에서 홀로 상경한 쇠잔한 노파의 모습과 익명의 군중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차원의 고독보다 더 지독한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게 된다. 경성역 대합실에서 구보의 주목을 끈 관찰대상은 지게꾼, 노파, 병자와 노동자였다. 구보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 경성역 삼등 대합실의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려했으나 그 곳에서 오히려 더 심한 고독을 발견한 것이다. 군중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 구보에게 군중은 일종의 베일(veil)이었으며 이 베일을 통해 도시의 충격체험을 완화시키고 경성의 환상에 도취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오히려 구보는 경성의 군중들에게는 인간과 인간 간의 믿음이 사라지고 예의바른 무관심만 남아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 속에서 군중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과 인간미가 소멸되는 지점을 포착해내고 있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해야한다.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땠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끔 사람들은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구보는 그 시골신사가 노파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겼다. (박태원 단편선, pp.114-115)

도시라는 향구와 친해야 한다는 구보의 말은 그 당시 시장 경제로 편입되는 경성의 과도기적 공간에서 자신을 자유로이 방랑하는 산책자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즉 식민 자본주의 도시, 경성에서 경제적 지위도 사회적 권력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지식인의 고독과 유랑의식을 떠나는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향구로 비유함으로써 자유와 고독, 거주와 유랑, 안주(安住)와 모험의 대립과 같은 변증적 긴장을 표현하는 대목이다. 또한 구보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 현실 참여를 통해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소설가로서의 직업의식은 시의적이고 변화하는 무상성으로부터 예술과 같이 불변하는 영원성을 찾는 보들레르의 알레고리적 시각과 연결된다.

3.2 무의지적 기억과 멜랑콜리

박태원 소설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과 억압된 욕망으로 갈등하는 지식인의 내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품앗이 하며 겨우 살아가는 빈민, 경제적 빈곤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가는 카페 여급, 실직한 지식인과 카페여급의 동거 생활과 같은 비극적인 삶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룸펜 인텔리의 소외감과 지식인에 대한 일체의 감시와 억압과 같은 비극적이고 우울한 분위기가 많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멜랑콜리는 미학적 모더니티를 구현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미학적 혹은 문학적 모더니티는 근대적 변혁을 바탕으로 하면서 수용과 저항이라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형성된다는 면에서 도시산책자는 미학적 모더니티를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이다.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도시 산책자는 근대사회의 현실과 단절된 지식인으로서 식민지기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영역이 예술과 문화의 영역을 예측시키는 에토스에 대항하는 왜소해진 근대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주의 깊은 성찰 대신에 모두가 안락과 편리, 그리고 자유와 화폐를 추구하는 모더니티의 물결에 대항하는 도시 산책자는 도시의 부르주아적 모더니티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매혹되는 군중보다 고뇌와 멜랑콜리의 정서를 더 많이 담지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도시산책자의 눈에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은 보들레르가 경험한 19세기 메트로폴리탄 파리와 달리 근대적 자본의 속물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삶에 근거한 인간적 애정이 남아있는 변증법적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근대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경성유민들의 가난, 절망, 고독, 매춘과 같은 어두운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 예를 들어 『적멸』에서는 레인코트 사나이의 존재론적 권태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산책자 구보의 고독과 우울을, 『애욕』에서는 식민지 경성유민(京城府民)의 데카당스적인 욕망을, 『우맹』에서는 중심인물 학수의 디오니소스적 방랑을, 그리고 『성탄제』와 『길을 어둡고』에서는 근대 화폐경제 체제에서 낙오하여 도덕적으로 몰락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소설의 배경이 된 1930년대의 경성은 전근대적인 조선사회가 해체되고 새롭게 도입된 자본주의 체제는 경성유민들을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격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부터 속물적인 군중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도시에서 직면해야 하는 교환행위, 현란함, 스펙타클과 같은 충격 체험들은 군중으로 하여금 고립과 은폐라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만들게 하고 이러한 방어행동은 경험의 빈곤과 아우라의 상실을 촉진한다.¹⁰⁾ 이러한 과정에서 슬픔, 무기력, 허무감, 피로감 등의 정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서 군(群)을 통틀어 멜랑콜리(우울)라고 말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멜랑콜리아말로 무사태평한 웃음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시대의 질병이며 우리로부터 명령과 복종과 행동과 희망의 용기를 앗아간다”(Kierkegaard, 1843; 김홍중, 2006에서 재인용)라고 하면서 불안과 멜랑콜리는 오직 신으로의 귀의(歸依)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설파한다. 한편 그는 올바른 불안과 멜랑콜리는 신(神)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멜랑콜리를 변증법적으로 파악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이데거(Heidegger)는 불안을 세인(世人)들이 흔히 하는 근거 없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근본정서로 해석한다. 즉 자신의 “있음” 그 자체를 문제 삼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임과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본래적 현존재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론적 불안은 “있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근본기분이며 이러한 불안을 가진 자는 그동안 친숙했던 세계로부터 미끄러져 나갈 때 한없는 고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고독한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멜랑콜리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멜랑콜리는 무기력, 나태, 게으름,

10) 김길웅(2007) 「시간과 멜랑콜리: 1930년대의 근대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모티프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36, p.249, 도시에서의 자국의 과응에 대한 방어 자세는 선택적이고 파편화된 인지로 이어진다. 인지방식의 파편화는 대상과의 내밀한 교감이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대상이 인간 기억의 표면에만 남게 된다. 벤야민은 도시인들의 인지방식을 “체험(Erlebnis)”이라 하고 전 근대 사람들의 “경험(Erfahrung)”과 구별한다.

슬픔을 동반하거나 격렬한 분노에 의해 과멸에 이르게도 하지만 반대로 정신이 집중된 상태에서 열정적인 명상과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다(홍준기, 2010, pp.218-219). 벤야민은 19세기 파리 중심가에서 군중 속을 배회하던 산책자인 보들레르의 시세계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멜랑콜리의 정서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지니고 있다가 언제든 표면으로 솟아나는 정서라고 하였다. 이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불안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인간은 세인들 속에서 속물성에 젖어 안락한 마음을 갖지만 문득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혹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와 같은 존재론적 물음을 묻게 된다. 이 같이 비본래적 현존재에 대한 의구심과 본래적 현존재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속에는 멜랑콜리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가 불안을 인간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으며 본래적 현존재로 가기 위한 조건, 즉 불안이 자신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무(無; das Nicht)로 지향하는 통로라고 했듯이 멜랑콜리도 고독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상성에서 영원성을 찾기 위해 기존의 가치관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는 하이데거의 불안과 같이 본래적 현존재로 나갈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멜랑콜리가 일상성에 대한 에포케(epoche)와 디오니소스적 격정을 통해 도취, 광기, 방랑, 슬픔, 죽음과 같은 부정성을 내포한 정서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광폭한 파도와 같은 격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무상성에서 영원과 불멸의 요소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감정을 예각화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멜랑콜리의 변증법적 특성을 감안하면 멜랑콜리의 해석과 표출의 방식이 다의적이고 중첩적인 알레고리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이다. 벤야민은 『독일 비애극의 원천』에서 17세기 독일 바로크 비극의 근본정서를 멜랑콜리의 파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멜랑콜리의 고유한 표현방식은 알레고리라고 주장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의 멜랑콜리는 주로 식민지기의 피식민 계급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소외에 의한 우울 혹은 일제 강점하의 억압적 상황에 의한 우울이었다. 화신상회를 나와서 전차에 올라탄 구보는 차장의 차비 요구에 바지 주머니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꺼내 들었다.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위에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11년. 8년. 대정 54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박태원 단편선, p.99)

구보는 동전에 새겨진 일본 연호 ‘대정’을 주목하고 역사적 의미를 이입한다. 일본 연호의 사용은 식민화된 조선의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이며 구보가 탄 전차가 마침 종묘 앞에 섰을 때 동전이 뒤집혀 있는 것을 인지하는 장면에서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종묘와 일본 연호 ‘대정’을 이항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왕과 왕비, 그리고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다. 구보는 순간적으로 연호 숫자들을 무의지적 기억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는 특정 사건들과 연결하려고 한다. 권은(2013)¹¹⁾은 구보가 무의지적 기억으로¹²⁾ 상기한 사건들을 1919년의 3·1운동과 의열단 결성, 1922년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와 극단토월회조직, 1923년 임시정부와 관동 대학살 등을 나열하면서 이 시기가 일제에 대한 아나키즘적 투쟁이 활발한 시기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1919년부터 1923년 까지 시기는 항일 의열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에서의 의미와 행복이란 의열단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억이라고 단언한다(권은, 2013, p.86).¹³⁾ 민족적우울이 표현된 부분은 또 있다. 다방 안에서 일본순사로 의심되는 사내의 시선을 피해 나온 구보는 부청(府廳) 쪽을 향해 걸었다.

구보는 한길 위에 서서 넓은 마당 건너 대한문을 바라본다. 이동 유원지 유동의자라라도 앉아서..... 그러나 그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옛 궁전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해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박태원 단편선, p.110)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캄쑈고 린네르 쓰메이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 다시 우울 속에 그 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박태원 단편선, p.116)

11) 권은(2013)「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4-85

12) 변찬복(2013)「벤야민의 아우라로 본 관광의 진정성」『인문학논총』32, pp.84-85 벤야민은 보들레르 에세이에서 프루스트(Proust)의 무의지적 기억(memoire involontaire)을 차용하여 아우라가 무의지적 기억 속에서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른다고 한다. 무의지적 기억은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한 과거의 존재론적 독립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감각과 무의지적인 과거의 기억과 합치되어 일반화되는 본질, 즉, 진실의 발견을 의미한다. 무의지적 기억이 우연한 기회에 느닷없이 떠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우라가 발견되는 지점이며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단적 기억으로 확장된다는 것이 벤야민의 주장이다.

13) 권은, 상기서, p.86.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자주 언급된 다쿠보쿠, 자로, 공용 등이 아나키즘적 의지를 가진 인물들이라는 사실과 구보가 동전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한 개의 의미’와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서 “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비겁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고, 그래서 자기가 “혹은, 위선자가 아니었었나” 돌이켜보기도 한다.

대한문의 초라한 모양은 일제에 의해 지배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 유원지 유동자의 애라도 앉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민족 전체가 일제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의 역사를 환기하는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식민지배 권력의 상징인 부청(府廳)과 비교해 보아도 너무나 초라하게 서 있는 대한문을 보고 구보는 조국 상실로 인한 우울의 정서에 휩싸였을 것이다. 구보의 눈에는 민족정기가 거세되고 부당한 외압으로 축소된 조선 전통 건축물과 일제의 의해 서양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부청(府廳)은 식민과 피식민, 동양과 서양, 전근대와 근대라는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 양복 입은 신사는 일본 순사임에 틀림없다. ‘의혹을 갖는 순사’는 언제나 피식민을 겨냥하는 감시 카메라와 같은 억압 이미지로 나타난다. 구보의 우울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조국 혹은 이상의 상실, 즉 어떤 추상적인 것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므로 멜랑콜리보다는 슬픔의 감정에 가깝다. 그러나 일본 순사의 감시 카메라 이미지는 박태원 소설 여기저기서 자주 발견되고, 항상 이러한 순사의 시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보가 식민지기 경성이라는 공간에서 질식과 두려움, 번뇌와 공포의 쇄도에 도달하는 멜랑콜리의 정서에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슬픔은 진지함과 고통스러운 내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멜랑콜리는 오히려 강한 농도를 갖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면서 어떤 명상에의 탐닉으로 이어진다. 구보는 단순한 우울자라기 보다는 우울이라는 식민지기의 시대감정을 존재론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산책자라고 할 수 있다. 박태원의 여러 소설에서 고독과 권태가 미학적으로 형상화 된 것은 그의 멜랑콜리 기질로부터 발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자본주의 화폐경제로부터 소외된 가난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성탄제』에서는 중심인물 영이의 허무적우울이 잘 형상화 되어 있다. 영이는 늙으신 어머니가 남의 일을 거들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빈곤한 가정의 장녀이다. 그녀는 카페여급으로 가끔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돈을 벌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생 순이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부모에 대해선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 이와 같이 가족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던 카페여급이라는 직업과 매음행위로 인하여 영이와 부모, 영이와 동생 순이와의 관계는 애증 관계가 형성되어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 없는 멜랑콜리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 그녀가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자 카페여급의 일을 못하게 된다. 영이가 그러한 시련을 겪는 동안 순이 역시 학교를 그만두고 카페여급으로서 과거의 영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동생 순이가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매춘을 하는 날의 묘사에서 작기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과 솟구치는 눈물 그리고 영혼이 짓밟혀버린 영이의 우울한 정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건넌방에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불은 벌써 아까 끈 모양이다. 나는 언제나 그 이튿날 아침이면 사내를 졸라 식구 수대로 자장면을 시켜왔다. 참말이지 이 동리 청요릿집에서 시켜다 먹을 것은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 하건만 너는 그것을 더럽다고 한번도 입에 대려 들지 않았다.... 나는 그러나 내일 아침에 어디 한번 맛나게 먹어볼 테다...

영이는 생각난 듯이 곁에 드러누운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물론 지금 건넌방에서 순이의 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을 게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놀라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냐?’

갑자기 몸이 으스스 추웠다. 영이는 베개를 고쳐 베고 눈을 감았다. 어인 까닭도 없이 운동회 날 본 순이의 모양이 눈앞에 선하다. 이윽고 그것을 보고 있다 영이는 한숨을 쉬었다. ‘너마저 집안 식구에게 자장면을 해다 주게 됐니? 너마저 너마저...’

영이의 좁 여원 뺨 위를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박태원 단편선, pp.298-299)

과거에 영이가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며 매음을 한 대가로 식구들에게 자장면을 시켜주었을 때 이를 더럽다고 먹지 않았던 순이가 영이가 한 행위를 따라서 할 때 영이가 흘리는 눈물은 순이에 대해 증오의 마음보다는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내재되어 있던 부도덕에 대한 마비가 가져오는 불편함과 공허가 원초적 감정으로 폭발된 것이다. 근대 화폐경제의 확대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정한 계산적 합리성에 의해 행동하게 하고 슬픔과 멜랑콜리의 정조를 분출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모더니티는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것과 소통하는 고양의 체험에 수반되었던 비극적 감정의 소멸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영이의 뜨거운 눈물은 파토스의 소멸이 가져다준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갑자기 운동회 날 본 순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오늘 순이의 매춘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무의지적 기억에 의해 영이의 감정에 되살아난 것이다. 무의지적 기억은 과거를 조용히 반추하는 평온한 의지적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발적인 계기를 통해 불현듯 현출하는 망각의 회억(회억)을 말한다(김홍중, 2010).¹⁴⁾ 걸모양만 보고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카페 걸, 영이가 동생인 순이의 운동회 날 학교에 나타난 것 자체가 순이에게는 수치였었다. 그렇게 자신을 증오했던 순이가 오늘 바로 옆방에서 어떤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영이에게는 충격과 환멸로 다가온 것이고 운동회 날에 대한 기억은 카페 여급으로 살아온 자신에 대한 각성 체험이기도 하다. 순이의 새로운 모습과 영이의 기억이 붙들고 있는 순이의 과거의 모습, 즉 꿈의 어지러운 파편들 사이에서 영이는 존재자체가 와해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이의 멜랑콜리는 허무감, 무사감, 감정을

14) 김홍중(2010)『마음의 사회학』문학동네, p.193

느낄수 있는 능력이 쇠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냐?”
 에서와 같이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증오를 자신과 인생을 성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자신의 부도덕과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으로부터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표출할
 수 있는 파토스적 능력을 복원시키는 멜랑콜리이다. 『성탄제』는 전근대적인 서울에서 경성이
 라는 근대도시로의 변화 속에서 양산된 소외계층의 빈곤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와 부도덕
 을 그리면서 중심인물 영이의 멜랑콜리 정서를 부각시킨 작품이다. 따라서 근대성-도시-멜랑
 콜리의 상호 연관성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경성의 근대성은 식민 자본과
 신기술의 유입으로 경성유민들의 생활에 속도와 합리성을, 그리고 도시화로 집단성과 편리성
 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가치에 의해 인격체와 인격체가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와해되고 교환가치가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무관심, 병, 범죄, 불안이 꿈틀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소음, 분주함, 익명성이 확대되었다. 보들레르는 근대 도시가 생성해낸 늙은 여인,
 광대, 녀미주의, 가난한 예술가와 같은 소외계층의 멜랑콜리를 문학적 창조를 통해 심미적으
 로 승화시켰다. 박태원은 멜랑콜리한 산책자의 시각으로 식민지기 근대성으로부터 우울과
 삶의 허무를 발견하였으며, 『성탄제』에서는 중심인물 영이의 심리적 위치를 좌절, 상실,
 절망의 멜랑콜리로부터 성찰과 사유의 멜랑콜리로 전환시키려는 기획이 엿보인다. 그런 면에
 서 문학 장르는 보들레르의 그것과 다르지만 박태원도 중심인물인 카페 걸, 영이의 인간적인
 측면을 파고들어 멜랑콜리의 정서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무의지적 기억을 통해서 우울의 정서로 빠지는 대목은 박태원의 소설 곳곳에서 나타난다.
 구보는 산책을 통해 도시의 흔적들과 마주하면서 경성이라는 도시에서 있는 자신과 동경에서
 의 자신을 교차시키는 체험을 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친구와 함께 카페
 여급들과의 잠깐의 만남 이후에 설령탕집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설령탕이 나오는 사이에
 동경에서 어떤 여인과의 짧은 만남을 회상한다.

어서 읍소 설령탕 두 그릇만 주우. 구보가 노트를 내려놓고 자기의 실례에 가까운 심방에 대한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이
 아닐 게다. 어제 어디 갔었니. 길옥신자(吉屋信子).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숟가락 든 손을 멈추고 뻗히 구보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생각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의미
 없이 웃어보였다. 줌 올라오세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였다. (박태원 단편선, p.134)

상기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현재 마주앉아 있는 친구와의 대화 혹은 행동 묘사이고

밀줄 치지 않은 부분은 과거의 회상을 표현한 것이다. 박태원은 작품에서 영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공간에 집중하는 오버랩과 독립된 삼상들을 이동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구성하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시 산책 모티브가 진하게 내재되어 있는 소설에서 몽타주 기법이 많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도시 산책자는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산보를 통해 도시 공간에 남겨진 흔적들과 기억의 흔적조차 몽타주처럼 편집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바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천변풍경』이 몽타주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여자는 총명하였다. 그들이 무장야관 앞에서 자동차를 내렸을 때, 그러나 구보는 잠시 그 곳에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뒤에서 내리는 여자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의 앞에 외국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서 있었던 까닭이다. 구보의 영어교사는 남녀를 번갈아보고 새로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고 오늘 행복을 비오. 그리고 제 길을 걸었다. 그것에는 혹은 삼십 독신녀의 젊은 남녀에게 대한 빈정거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소년과 같이 이마와 콧잔등이에 무수한 땀방울을 깨달았다. 그래 구보는 바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어 그것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저녁에 먹은 한 그릇의 설렁탕은 그렇게도 더웠다. (박태원 단편선, p.135)

친구와 함께 거리를 지나면서 목격한 카페의 여급에 대해 구보는 “이러한 종류의 계집으로서 는 드물게 예뻐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여자보다 좀더 아름다웠던 것임에 틀림없었다’고 하면서 동경에서 사귀었던 여인을 회상하였다. 즉 현재 경성 거리에서 보고 있는 카페 여급에게서 과거 동경에서의 여인을 상기하고 있다. 자리를 옮겨 설렁탕집 공간에서 사귀던 여인과의 동행을 영어교사의 부정적 시선에 노출된 동경에서의 사건이 펼쳐지는 구성이다. 즉 그의 기억을 촉발시킨 것은 친구와 같이 걸었던 경성의 어느 거리였으나 구보의 무의지적 기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은 설렁탕집이다. 이러한 삽화적 구성을 통해 구보의 상실감에 의한 우울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어교사의 빈정거리는 시선이 사귀던 여자와의 헤어짐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동경에서 만난 여인에 대한 기억은 구보를 슬픔으로 몰고 간다.

4. 나가는 말

박태원 소설의 산책자 모티브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최혜실(1988)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모더니즘 인물인 산책자를 리얼리즘과

대비시킨다. 즉 박태원의 전기에 해당하는 모더니즘적 소설에서는 현재의 파편들 속에서 과거의 진실을 끌어 맞추려고 노력하는 산책자를 등장시킨 반면에 리얼리즘에 해당하는 후기 소설은 자본주의적 폐해를 극복하는 인물로 ‘문체적 개인’을 등장시켰다고 주장한다. 최은자(2001)는 박태원 소설의 내용을 비극적인 삶, 지식인의 소외, 일상적인 삶, 그리고 억압된 욕망으로 나누어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박태원소설의 산책자 모티브를 중심인물의 경제적 자아와 고독, 무의적 기억과 멜랑콜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롬펜인텔리에 속하는 구보는 근대화된 경성에서 상품물신과 속물주의를 경계하면서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풍속을 수집하기 위하여 경성을 산책하는 플라너르(flaneur)이다. 구보는 실직과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세속화된 가치에 대한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예술가적 자존심을 지켜내려고 한다. 가정생활과 직업을 가진 현실 적응자들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속물적인 내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애욕』, 『적멸』에서 구보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학적 모더니티 경계에 서있는 경제적 자아로 형상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멸』에서 사나이의 광기어린 행동을 보고 박태원 혹은 ‘나’ 구보는 단지 사나이의 지독한 권태의 이면에 숨어있는 고독에 연민을 느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나이의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현실도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동질감을 갖는다. 이는 사나이의 행동은 식민지 자본주의에 포섭되어 아우라와 진정성이 상실되어 가는 경성의 정신적인 풍경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나이가 느끼는 권태와 고독의 정서는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향유하는 경성유민들의 의식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사나이의 광기를 매개로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결국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관찰하여 이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산책자 구보는 사나이의 광기를 부르주아 모더니티의 광기와 동일시하는 알레고리를 구사하는 것이다. 『애욕』에서 몇 번의 만남으로 하응의 마음을 빼앗아간 모던 걸은 어떤 남자에게도 욕망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은 어떤 남자도 욕망하지 않는 팜프프탈 형의 여자로 등장한다. 여러 남자들을 매혹하는 여자에 대해 하응은 몇 번이고 만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마지막까지 욕정을 버리지 못 한다. 작가는 하응을 통해 물신숭배와 속물성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성 군중의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다. 구보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 경성역 삼등 대합실의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려했으나 그 곳에서 오히려 군중속의 고독을 발견한다. 즉 인구집중과 급속한 도시화는 경성의 군중들로 하여금 인간적 차원의 접촉과 믿음이 사라지고 예의바른 무관심만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군중 속에서 경제적 지위도 사회적 권력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지식인의 유랑의식을 자유와 고독, 거주와 유랑, 안주(安住)와 모험 사이를 오가는 경제적 자아로 표출한다.

그의 작품에는 근대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경성유민들의 가난, 절망, 고독, 매춘과 같은

어두운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 멜랑콜리는 디오니소스적 걱정을 통해 도취, 광기, 방랑, 슬픔, 죽음과 같은 부정성을 내포한 정서임과 동시에 일상성에서 영원성을 포착해낼 만한 사유와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의 멜랑콜리는 주로 식민지기의 피식민 계급으로서 정치적·사회적 소외와 민족적 상실감에 의한 우울한 정서였다. 『성탄제』에서는 카페 걸로 살아가는 자신의 부도덕을 증오하던 동생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사실은 영이로 하여금 자신의 부도덕에 대한 자책감보다 더 상처가 깊은 비극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한없이 흐르는 영이의 눈물은 자신의 부도덕과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으로부터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파토스적 능력을 복원시키는 멜랑콜리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구보가 무의지적 기억을 통해서 우울의 정서로 빠지는 장면을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공간에 집중하는 오버랩과 독립된 삼상들을 이동하고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구성하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본고는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산책자 모티브의 양상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가의 분신이며 중심인물로 자주 등장하는 산책자 구보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학적 모더니티, 현실 적응자와 현실 부적응자, 즉자적 속물과 대자적 속물, 에토스와 파토스의 경계에 있는 자이며 도시와 군중에 대해 매혹과 역겨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갖는 자이다. 따라서 경계적 자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나태함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인식된 권태와 고독을 분주함과 행복을 누리는 근대사회 군중의 무의식에 잠재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고독의 알레고리를 분석하였다. 주류에서 벗어난 중심인물들을 통해서 표출된 고독은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식민지기 지식인 구보를 통해 민족적 멜랑콜리를, 『성탄제』에서는 중심인물 영이를 통해서 부도덕성에 대한 성찰적 멜랑콜리를 발견하였다. 결국 본고는 모더니티-도시-산책자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모더니티-도시-고독과 모더니티-도시-멜랑콜리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參考文獻】

가와무라 미나토/요시카와 나기(吉川 凧) 역(2004)『한양경성 서울을 걷다』다인아트, p.44
 권은(2013)「경성모더니즘 소설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7
 김길웅(2007)「시간과 멜랑콜리:1930년대의 근대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모티프를 중심으로」『독일언어문학』36, p.249
 김홍중(2010)『마음의 사회학』문학동네, p.55

- 김효순(2012)「이상 문학의 불안과 마키노 신이치(牧野信一) 문학의 방법」『일본근대학연구』 36집, 한국일본 근대학회, p.188
- 노명우(2007)「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와 모더니티의 원역사」『발터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홍준지 엮음, p.31
- 마츠야마 메구미(2012)「수도 도쿄의 원형-도쿄의 정도와 예도의 개조」『동아시아 각국 수동의 근대적 변이』 p.185
- 맹주만(2009)「칸트와 노자: 경계와 사이의 철학」『칸트연구』24호, 칸트학회, p.205
- 박성창(2010)「모더니즘과 도시:박태원소설에 나타난 산책자 모티브 재고」『구보학보』5(1), 구보학회, pp.129-158
- 발터 벤야민(2010)『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길, p.26
- 변찬복(2013)「벤야민의 아우라로 본 관광의 진정성」『인문학논총』32,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84-85
- 여환진(2010)「본정과 종로; 재현을 통해 본 1930년대 경성번화가의 형성과 변용」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욱(2002)「한국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도시문화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7
- 전우용(2001)「종로와 본정:식민도시 경성의 두 얼굴」『역사와 현실』40, 한국역사학회
- 조희원(2011)「보들레르와 모더니티 개념」『미학』68, 한국미학회, p.250, p.253, p.254
- 박태원(2005)『박태원단편선』천정환 책임편집, 문학과 지성사
- 최은자(2001)「1930년대 박태원 소설연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 최혜실(1988)「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 연구」『관악어문연구』1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91-207
- 칼리네쿠스(1993)『모더니티의 다섯얼굴』이영욱 외 역, 시각과 언어, pp.53-58
- 토머스 칼라일(2003)『영웅숭배론』한길사, p.17
- Baudelaire, C. 저·박은수 역(1995)『보들레르 시전집』민음사, p.213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박태원 소설에 나타난 도시산책 모티브의 양상

선행연구에서는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대비적 관점 혹은 비극적 삶과 일상적 삶, 억압적 욕망과 지식인의 소외라는 측면에서 의식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박태원 소설의 도시산책자 모티브를 경제적 자아와 고독의 알레고리, 무의지적 기억과 멜랑콜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산책자 구보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미학적 모더니티, 즉자적 속물과 대자적 속물, 에토스와 파토스의 경계에 있는 자이며 도시와 군중에 대해 매혹과 역겨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갖는 자이다. 따라서 경제적 자아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나태함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인식된 권태와 고독을 분주함과 행복을 누리는 근대사회 군중의 무의식에 잠재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고독의 알레고리를 분석하였다. 주류에서 벗어난 중심인물들을 통해서 표출된 고독은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저항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식민지기 지식인 구보를 통해 민족적 멜랑콜리를, 『성탄제』에서는 중심인물 영이를 통해서 부도덕성에 대한 성찰적 멜랑콜리를 발견하였다. 결국 본고는 모더니티-도시-산책자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모더니티-도시-고독과 모더니티-도시-멜랑콜리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The types of motives of city walks incorporated into Park Taewon's novels

The previous study has elucidated a contrast between modernism and realism in the novels of Park Tae Won. Another study has analyzed the stream of consciousness of the novels' heroes from the points of tragic and normal life, depressed desire and alie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lluminate the flaneur motif of the novels of Park Tae Won by focusing on the boundary self, the allegory of solitude involuntary memory, and melancholy. The flaneur GuBo had a boundary position between bourgeois modernity and aesthetic modernity, en-soi snob and pour-soi snob, ethos pathos. He also had an ambivalent sentiment toward city and its masses. The weariness and solitude were thought to be laziness and escape from reality. The author supported the viewpoint that the solitude was lurked in the minds of city masses who had enjoyed vacuous busyness and happiness. This led to ascertaining a allegory of the solitude. The resistance to bourgeois modernity was inherent in the solitude of the alienated heroes in the novels. Ethnic melancholy was found in "A Day of Novelist Gu Bo" while self-contemplation melancholy in "Christmas". This study illuminated both the relationship among modernity, city, and solitude and the relationship among modernity, city, and melancholy.